

# 심판받을 에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구원받은 자

-복음으로 여는 오바다-

오바다 1:21, 사도행전 1:3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영적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아담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을 누리다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운동의 제자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해결한 믿음의 시조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다. 야곱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복음과 언약의 소중함을 알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데 형 에서에는 복음과 언약의 소중함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장자의 축복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 후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인 에돔 족속은 대대로 형제민족인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만하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장자의 축복이란 그리스도의 축복, 교회, 전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돔 족속의 악행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길을 막았던 사건이다. 이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을 때도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서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악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에돔 족속을 꾸짖람하는 내용이 오바다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오바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약 12명의 오바다가 등장한다. 오바다서를 기록한 오바다는 아합시대의 중직자 오바다와 다른 인물이다. 오바다서는 단지 21절로 이루어진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다. 그중 전반부는 에돔 족속을 향한 꾸짖람과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 가족, 이웃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첫 번째로, 에돔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에돔 족속의 악행들이다. 에돔 족속의 악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길을 막았던 사건이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열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막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① 먼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딸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② 그러나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름길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다. ‘뿔뿔을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었다. 뿔뿔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 뿔뿔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길만 내주면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2) 오바다서에 기록된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은 교만이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철용성만 믿었다. 오바다 1장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돔 족속들이 세운 페트라라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다. 이러한 요새를 믿고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결국 그 페트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멸망하였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성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나의 페트라는 무엇인가?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는 대통령이 와도 겸손하게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어떤 명문대 교수가 와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훈련 많이 받고 메시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답과 방향을 받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세상의 많은 명언이 있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붙잡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3) 에돔 족속들은 이방의 편이 되어 같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며 약탈하였다. 오바다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때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① 첫 번째로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 노략질을 하였다. 오바다 1장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다.

② 형제 민족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하고 있었다.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고 말씀하

고 있다. 지난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와 함께 일하던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 작전의 이름이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이었다. 오바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성취를 보았다. 내가 방입하지 않고 돕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

③ 그들은 이스라엘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크게 웃고 떠들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체질을 거둬내게 만들어서, 잘되는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과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이다.

④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성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하였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잘못하였다.

⑤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았다. 14절에 보면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금요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IS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공항폭탄테러가 있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여러분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배경에 사탄이 있어서 노예 만들고 테러하게 되는 역사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타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를 살렸다. 흑암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면서 악한 왕들을 변화시켰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복음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에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보라. 근본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역이 되는 것이다.

⑥ 뿐만 아니라 에돔사람들은 적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기기도 하였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완전히 에돔 족속은 망하고 말았다.

(2) 다음으로는 이러한 에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사탄의 나라에 내리실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고 있기도 한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다. 에돔 족속이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사탄의 나라를 없애고 영원한 지옥에 가두지 않는가.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징계하시겠다고 오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서 흑암 세력을 징벌하시는 하늘보좌의 역사이다. 오바다 1장 1절 말씀이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② 에돔을 매우 작고 약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결국에 사탄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바다서 1장 2절을 보겠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않고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나 중심, 물질 중심, 타락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에돔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거둬내게 만들어야 한다.

③ 그 심판의 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불신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어리석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지혜의 정의는 미리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탄에게 속아 네피림이 되어버린 에돔 족속은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셨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알아보겠다.

(1) 시온산의 회복이다. 오바다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시온산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불신앙, 죄, 사탄의 문체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주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즉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 아브라함과 아곱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오바다서 1장 17절 후반절을 보면 '아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곱족속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인공지능, 미디어, 메타버스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즉, 3기업의 응답도 실현해 갈 것이다.

(3)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오바다 1장 18절에 보면 '아곱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램넛트들은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치유와 서밋의 리더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Nobody, Nothing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후대를 Everybody, Everything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해주실 것이다. 그 조건이 예수주인 삼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7명의 램넛트들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오바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에돔과 같은 어떠한 적이 있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이다. 우리는 이 전도, 선교를 62가지 말씀운동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을 에돔과 같은 네피림 민족에서 언약의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갖는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통신망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속이고 있는 에돔의 목록, 페트라 목록을 작성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결박하기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영적 과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어 에돔같은 빈 곳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치유하는 복음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